

요즘, 내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정말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보다 나에게 훨씬 많은 연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지만,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흡연자(꺽연자)들의 권리라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은 것은 비흡연자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사람들(꺽연자)의 가족이 그 사람 뒤에서 쫓아가고 있다면 「똑같이 담배를 피면서 걸어갈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갑자기 담배를 끊으라고 말하는 것에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도 일종의 기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장소와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규라는 것은 법규자체 때문에 세우는 것은 없어야 되겠죠. 다만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목적에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발견되면 우선 사람들이 지적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법규보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죽(계속)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가 개인의 취미나 기호라고 말할수 있다면 그 반대로 그런 기호가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를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많은 흡연자들이 갑자기 실행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좀더 기회를 주고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그 설득이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되겠죠.

결론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될 법규나 분위기 조성이 한국에서 일본에도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을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아는 것이 그 법규나 분위기 조성보다 좀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